

#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Impacts of Abuse Damage Experiences on Ego-Resilienc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이조경, 백순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o-Kyoung Lee(rdeliro@naver.com), Soon-Hee Back(sh6515@korea.kr)

###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부산시내 중학생 1, 2, 3학년 5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피해대경험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대피해 경험에 없을수록 자아탄력성은 증가하였다. 두 번째, 청소년의 피해대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학대피해 청소년의 부정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국가의 사회적 지지 방안을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학대피해청소년 | 학대피해경험 | 자아탄력성 | 사회적 지지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youth's abuse experiences on the ego-resili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For this purpose, the survey and analysis were carried out targeted on 568 students in the 1st, 2nd and 3rd grade of middle schools in Busan. First, it was indicated that abuse experiences of youth affect on ego-resilience. In detail, the lower the grade and the less the abuse experiences, the ego-resilience gets increased. Second, in view of impacts of youth's abuse experiences on resilience, the social support has a moderating effect.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suggests the social support measures to be taken by home, school, community and country in order to improve the resilience which could be a self-power to overcome his or her own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despite the negative experiences of abuse experienced youth.

■ keyword : | Abuse Experienced Youth | Abuse Damage | Ego-resilience | Social Support |

## 1. 서론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1]의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아동 1천

명당 아동학대 피해 아동 수가 1명을 넘었으며, 전체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82%는 부모라고 발표하여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접수일자 : 2015년 09월 24일  
수정일자 : 2015년 12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29일  
교신저자 : 이조경, e-mail : rdeliro@naver.com

반증하였다.

아동·청소년학대, 특히 부모 등의 보호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대는 이후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2].

그러나 학대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보여 지는 증상들을 연구한 선행연구 중 주목되는 결과는 학대라는 동일한 위기적 생활사건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같은 적응 혹은 부적응 수준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학대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동·청소년들은 그 부정적인 영향의 궤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적응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3]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여러 적응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학대적인 환경에서도 과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적응해갈 수 있도록 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대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적응능력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의 긍정적인 적응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보호 기제를 밝힐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학대피해 경험을 가진 청소년에 대하여 긍정적 적응의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보호 기제로써 자아탄력성에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좌절이 스트레스와 많은 환경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4], 단순히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없애는 것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참여[5]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갖도록 함으로서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6]. 자아통제와 자아탄력성은 한 개인의 동기, 정서, 행동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7]. 최근에는 자아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8],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긍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9]으로 간주되어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10].

무엇보다 학대가 하나의 유형의 학대보다는 방임, 정

서적 학대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심각하고 장기적일 수 있다. 또한 학대는 그 형태나 심각성 수준이 어떠한,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학업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대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위기경험 속에서도 긍정적 적응을 이해[11]하는데 있어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대피해경험과 자아탄력성과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욕구를 지니며 타인으로부터의 상호작용은 인간의 발달을 촉진하는 영향을 주는데[12], 개인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사회적 지지이다[13]. Markstrom[14]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가족과 친구에게 받는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사회적 지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기술과 자아탄력성을 증가 시킨다고 하였으며[15], 사회적 지지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는 보호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16][17]고 하였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피학대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18-20]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에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또는 가정을 넘어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하여 비록 예측되는 결과로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없지만,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수반된다면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청소년이 학대라는 부정적인 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학대피해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성을 높이는데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실제로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학대피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 검증을 통한 이론적 근거와 실천적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대피해경험과 자아탄력성

아동과 청소년의 학대피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여 청소년의 대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와 청소년학대는 같은 대상에 대한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시대와 문화 또는 상이한 사회문화 집단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나 실천가들 간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정의가 없다[21][22].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1961년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미국 연방 정부의 학대방지 및 치료법에 의하면 “18세 이하의 아동이 그 아동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건강과 복지에 해를 입거나 이를 위협하는 환경 하에서 신체적, 정신적 손상, 성적 학대, 방임 또는 부당대우(maltreatment)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3].

아동학대의 유형 또한 학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황해자와 조수진[17]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박풍규[24]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언어학대와 방임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반면, 김현수[25]은 아동학대를 협의적 정의와 광의적 정의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진 상처만을 국한시키는 경우를 협의적 정의로 보았고, 신체 학대 이외 정서학대, 방임, 성 학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을 광의적 아동학대로 보았다.

반면, 자아탄력성은 상황적 요구에 알맞은 융통성과 문제해결 전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개인의 과정과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심리학적 개념이다. 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이며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기능을 수행하며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탄력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Rutter[26]는 탄력성을 “고위험에 처한 개인들 중에서 발달적 결과(outcome)에 대한 긍정적 귀결”로 정의하였으며, Masten 외 동료들[27]은 탄력성 현상에 대해 “고위험에 처한 개인들이 예상된 결과보다 더 좋아 보임, 스트레스로 가득 찬 경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이 유지됨, 외상으로부터 적절한 회복의 존재”로 정의하였다[28]. 또한 Fonagy 등[29]은 탄력성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Dyer and McGuinness[30]는 개인 대 개인, 그리고 가족의 영역 안에서의 역량을 의미하는 보호요인들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하나의 과정으로, Rutter[31]와 Garnezy[32]는 환경적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놀랍게 잘 기능하며 스트레스에 저항적인 아동의 특성에 기초하여 탄력성을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회복력’[33], ‘자아탄력성’[34], ‘적응 유연성’[35] 등의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들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학대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resilience)은 ‘학대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최근의 아동학대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 학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중재할 수 있는 보호요인들에 관한 연구[36-40]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학대경험아동의 적응을 측정함에 있어 불안과 우울, 철회, 비행, 공격성, 사회적 미성숙, 학교부적응 등의 부정적 결과[19][40-43]에 대한 연구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의 탄력성에 기여하는 보호요인을 규명한 국외연구로 Cicchetti와 그의 동료들[44]은 학대경험 아동과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개인의 인성적 차원이 탄력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학대받은 아동들이 학대받지 않은 아동들보다 탄력성 영역의 수는 적었지만,

중간 수준의 탄력성(2~3개 영역)과 높은 수준의 탄력성(4개 영역 이상)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였더라도 반드시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탄력성을 연구한 Perkins and Jones[2]는 친사회적 행동과 위험행동의 부재를 탄력성 지표로 구성하고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족, 가족외적 보호요인을 확인하였다.

Jaffee와 그의 동료들[3]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탄력성에 미치는 개인, 가족, 근린지역의 요인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은 탄력성을 관계적·사회적 차원, 정서적 차원, 학업적 차원으로 구성하여 탄력적인 아동들을 확인하였는데, 학대경험 아동의 약 1/4이 탄력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상준[45]은 가정폭력경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다차원적 탄력성(개인적, 사회적, 학업적 탄력성)을 확인하고 이들 탄력성에 미치는 보호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상준[46]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탄력성(협동심, 공감, 주장성)에 대한 환경적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소영[47]은 아동학대와 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교사지지, 친구지지)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의 경험이 심각한 아동일수록 낮은 탄력성을 보여 아동학대가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학대의 피해경험은 아동과 청소년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탄력성은 또한 학대피해경험에서의 보호요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피해경험이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중요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학대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입 방향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 2. 학대피해경험과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사

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의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 변인이다[16].

Cohen과 Hoberman[48]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Cobb[49]는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사회적 지지라고 정의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타인으로 하여금 관심 받는 대상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지지를 사량받는 느낌, 가치 있거나 존중받는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더불어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적응성을 향상시키며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해 제공되는 정서적·신체적·정보적·도구적·물질적 도움을 포함한다[19].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이 주위 환경과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주요한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포함하며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준다[50]. 또 한편으로 사회적 지지는 양육과 안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소속감을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의 유용성으로서, 청소년이 대인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도움으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심리적·물질적 자원을 의미하기도 한다[51].

대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사회 심리적 자산, 사회적 유대, 의미 있는 사회적 접촉, 사회적 조직망, 지지체계, 관계 제공 등으로 불리며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부적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확인되어왔다. 탄력적인 아동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역량 있는 양육, 가족 혹은 비공식적 관계망과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는 아동학대, 빈곤, 부모의 정신질환 등과 같이 여러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과 별반 다르지 않게 긍정적인 적응 및 더 높은 성취 결과를 갖게 하는 주요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어 왔다[29].

김연수[51]는 개인이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단체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와 직접적 지지는, 역경이나 어려움 또는 예기치 못한 생활 사건들을 경험하는 개인과 가족의 적응과 안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 자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장덕희[52]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경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등의 각 차원의 사회적 지지의 보호요인이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에게 미치는 개인적인 보호요인으로는 자긍심과 내적 통제였으며, 가족보호요인에서는 가족의 지지가, 지역사회 보호요인으로는 친구의 지지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학대경험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연구한 김영현[53]의 연구에서, 아동학대는 위협요인(사회성, 불안우울, 공격성, 주의집중)과 보호요인(자존감, 민주적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유연성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요인은 아동학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따라 아동학대의 악영향을 최소화 시키고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입방법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자아탄력성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측면, 즉 가정과 또래, 교사와 사회적 지지와 지원과 더 나아가 정책적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비록 아동과 청소년이 통제할 수 없는 학대라는 상황에서도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의 사회적 지지의 활용 방안을 제언하고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

치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위의 연구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 2. 조사대상자

학생들의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1, 2, 3학년) 총 95,020명[54] 중 5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568명 중 남학생 322명(56.7%), 여학생 246명(43.3%)이었으며, 중학생 1학년이 213명(37.5%), 2학년 89명(15.7%), 3학년 266명(46.8%)이었다.

표 1. 조사대상의 특성

	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성별	남	107(33.2)	62(19.3)	153(47.5)	322(100.0)
	여	106(43.1)	27(11.0)	113(45.9)	246(100.0)
전체	213(37.5)	89(15.7)	266(46.8)	568(100.0)	

#### 3. 조사기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도움을 주기로 한 학교

와 학급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응답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알려준 다음 그 자리에서 설문을 실시한 다음 바로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시내에 소재한 전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권역에 따라 각 1개교씩 총 6개교에 각 100명씩 총 600명을 할당유의표집 하였다. 배포된 설문지와 회수된 설문지는 전체 600부이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32부를 제외한 56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측정도구

##### 4-1. 독립변수 : 학대피해경험

학대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홍은주[55]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입학대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신체학대의 경우는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가벼운 구타에 관한 문항(1, 4, 9), 상해의 위험이 있는 학대 행위에 관련된 문항(2, 3, 5), 학대의 동기상 혼욕적 차원의 체벌과 뚜렷이 구별되는 감정적 구타 행위를 묻는 문항(6, 7, 8)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정서 학대는 총 9 문항으로 아동에 관한 차별이나 편애에 관한 문항(10, 12, 17), 모욕적이고 거부적인 행동에 관한 문항(11, 13, 18), 언어적 학대에 관한 문항(14, 15, 16)들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방입학대는 부모의 행동 중 안전관리 소홀에 관한 문항(19, 20, 21), 건강관리 소홀에 관한 문항(22, 23, 24), 비행방조에 관한 문항(25, 26, 27), 애정 소홀에 관한 문항(28, 29, 30)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경험에 대해 '전혀 없었다'에서 '자주 그랬다'까지 1점부터 4점까지의 Likert 형 4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피학대경험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로 살펴보았는데, 학대피해의 전체 신뢰도는 .80이었으며, 그중 학대피해 경험의 신체 학대는 .89, 정서 학대 .85, 방입 학대 .84로 나타났다.

##### 4-2. 종속변수 :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Klohen[5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박현진[12]이 재수정 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하위요인인 낙관성, 자신감, 감정조절, 공감과 수용, 대인관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6이었으며, 본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과 신뢰도계수는 낙관성 6문항에 .93, 자신감 4문항에 .92, 감정조절은 5문항 .91, 공감과 수용 5문항 .90, 대인관계는 5문항에 .81로 이었다.

##### 4-3. 조절변수 :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박지원[57]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연수[51]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지지는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의 행위가 포함되며, 정보적 지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물질적 지지는 돈이나 물건 등을 필요시 제공해주는 행위를 포함하여, 평가적 지지는 칭찬이나 인정 등 자신을 평가하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총 25문항(Likert 척도)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는 5점, '조금 그렇다'는 4점, '그렇다'는 3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배점된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전체 신뢰도는 .98이었으며, 이중 정서적 지지는 총 7문항에 신뢰도 .95였으며, 정보적 지지는 6문항에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물질적 지지는 6문항에 신뢰도 .93이었으며, 평가적 지지는 6문항에 .95로 나타났다.

##### 4-4. 통제변수 : 성별, 학년

통제변수는 성별과 학년으로 선정하였다 성별은 여자=0, 남자=1로 전환하여 가변수로 투입하였고 학교는

학년은 1학년-1, 2학년-2, 3학년-3으로 전환하여 가변수로 투입하였다.

### 5.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버전을 통해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들간의 공변성 확인을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정규성 확인을 위한 첨도와 왜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독립 및 조절변수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은 센터링을 통해 구성하였다. 여기서 센터링이란 상호작용 변수를 생성할 때 (독립변수 - 독립변수 평균) × (조절변수 - 조절변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절변수 검증에서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58].

## IV. 연구결과

### 1. 학대피해경험에 대한 빈도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학대피해에 대한 빈도분석이 이루어졌다. 빈도분석은 학대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와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신체학대에서 가벼운 구타의 경우는 170명(29.9%)가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해위험 구타는 181명(23.1%), 감정구타는 99명(17.4%)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정서학대에서는 차별·편애적 행동 경험이 200명(35.2%), 모욕적·거부적행동 경험 163명(28.7%), 언어적 학대를 78명(13.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방임학대에서는 안전관리소홀이 143(25.2%), 건강관리소홀이 50명(8.8%), 비행방조는 65명(11.4%), 애정소홀은 74명(13.0%)로 나타났다. 학대피해 범주측면에서는 정서학대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이중 차별과 편애적 행동에 대한 경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학대피해경험의 빈도분석 (N=568)

범주	학대 내용	빈도	
		없다	있다
신체 학대	가벼운 구타	398 (70.1%)	170 (29.9%)
	상해위험 구타	437 (76.9%)	131 (23.1%)
	감정적 구타	469 (82.6%)	99 (17.4%)
정서 학대	차별·편애적 행동	368 (64.8%)	200 (35.2%)
	모욕적·거부적 행동	405 (71.3%)	163 (28.7%)
	언어적 학대	490 (86.3%)	78 (13.7%)
방임 학대	안전관리소홀	425 (74.8%)	143 (25.2%)
	건강관리소홀	518 (91.2%)	50 (8.8%)
	비행방조	503 (88.6%)	65 (11.4%)
	애정소홀	494 (87.0%)	74 (13.0%)

###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학대피해경험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대피해경험의 평균은 1.17(±.31), 자아탄력성 평균은 4.25(±.80),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4.41(±.7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대피해경험의 하위요인인 신체적학대는 평균 1.18(.39)이었으며, 정서적학대의 평균은 1.21(±.42), 그리고 방임학대의 평균은 1.10(±.27)이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성의 평균은 4.24(±.86)이었고 자신감은 평균 4.23(±.90), 감정조절의 평균은 4.36(±.79), 공감과수용의 평균은 4.16(±.87), 대인관계의 평균은 4.25(±.83)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의 평균은 4.47(±.77), 정보지지의 평균은 4.45(±.77), 물질적지지의 평균은 4.32(±.82), 평가적지지의 평균은 4.41(±.8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정규분포 형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측정하였다. 김용석[59]은 왜도(skewness)는 3이상, 첨도(kurtosis)는 10이상이면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왜도가 0에 가까울수록 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까워지고 일반적으로 어떤 분포의 왜도가 +2에서 -2값을 갖는다면 그 분포는 정규분포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아탄력성의 경우 왜도 -.99, 첨도 -.29이며, 독립변수인 학대피해경험은 왜도 1.57, 첨도 8.86이며,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왜도 -1.18, 첨도 .11로 정규분포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자아탄력성	낙관성	568	4.24	.86	1.00	5.00	-1.03	.28
	자신감	568	4.23	.90	1.00	5.00	-1.10	.55
	감정조절	568	4.36	.79	1.00	5.00	-1.27	1.22
	공감과 수용	568	4.16	.87	1.00	5.00	-.82	-1.18
	대인관계	568	4.25	.83	1.00	5.00	-1.06	.61
학대피해경험	전체	568	4.25	.80	1.00	5.00	-.99	.29
	신체적 학대	568	1.18	.39	1.00	4.00	1.53	8.85
	정서적 학대	568	1.21	.42	1.00	4.00	1.51	8.82
	방임 학대	568	1.10	.27	1.00	3.58	2.70	8.83
사회적 지지	전체	568	1.17	.31	1.00	3.56	1.57	8.86
	정서적 지지	568	4.47	.77	1.43	5.00	-1.38	.86
	정보 지지	568	4.45	.77	1.67	5.00	-1.18	.06
	물질적 지지	568	4.32	.82	1.33	5.00	-1.08	.02
	평가적 지지	568	4.41	.80	1.83	5.00	-1.21	.23
전체	568	4.41	.77	1.90	5.00	-1.18	.11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투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차한계 분산팽창지수(Variancwe Inflation Factor:VIF)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차의 한계가 0.1이하이거나 분산 팽창지수가 10이상 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6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공차의 한계가 0.82였고 분산팽창지수는 1.22의 통계량을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뜻한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학대피해경험( $r=-.390, p<.01$ )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사회적 지지( $r=.742, p<.01$ )와는 정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피해 경험은 사회적 지지( $r=-.390, p<.01$ )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자아탄력성은 학대피해경험이 낮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높아지며, 학대피해 경험 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자아탄력성	학대피해경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1	-.390**	.742**
학대피해경험	-.390**	1	-.422**
사회적 지지	.742**	-.422**	1
평균(표준편차)	4.25(.80)	1.17(.31)	4.41(.77)

\*\*  $\rho < .01$

4.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본연구의 독립변수인 학대피해경험과 통제변수인 성별과 학년이 종속변수 자아탄력성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회귀분석 모형은 ( $F=43.71, p<.001$ )로 유의미하였다. 자아탄력성에 대하여 학년은( $\beta=-.19, p<.001$ )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냈으며, 학대피해경험 또한 ( $\beta=-.40, p<.001$ )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학대피해경험이 없을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표 5.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B	S.E.	$\beta$	t	
통제 변수	성별	.05	.06	0.29	.75
	학년	-.16	.03	-.19	-4.91***
학대피해경험		-1.05	.10	-.40	-10.58***
	상수	5.76	.17		34.27***
F			43.71***		
R2			.19		
adj R2			.18		
R2 change			.19		
F change			43.71***		

\*\*\*  $\rho < .001$

6.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아탄력성에 1단계는 통제변수인 성별과 학년을 투입하였으며( $F \text{ change}=8.40, p<.001$ ), 2단계는 통제변수와 함께 독립변수인 학대피해경험과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

표 6. 학대피해경험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1단계				2단계				3단계			
		B	S.E.	$\beta$	t	B	S.E.	$\beta$	t	B	S.E.	$\beta$	t
통제	성별	.64	1.68	.02	.34	.41	1.13	.01	.36	.18	1.13	.00	.16
변수	학년	-3.68	.91	-.17	-4.05***	-1.83	.62	-.08	-2.93**	-1.88	.62	-.09	-3.02**
	학대피해 경험					-7.25	2.03	-.11	-3.58***	-11.07	2.80	-.17	-3.96***
	사회적 지지					17.66	.81	.68	21.72***	17.71	.81	.68	21.84***
	피해경험 *사회적 지지									-3.79	1.92	-.08	-1.98*
	상수	113.10	3.23		34.68***	40.08	5.70		7.03***	44.33	6.08		7.29***
	F		8.40***				179.38***				145.03***		
	R2		.029				.560				.563		
	adj R2		.025				.557				.559		
	.R2 change		.029				.531				.003		
	F change		8.40***				340.28***				3.90*		

\*\*\*  $p < .001$ , \*\*  $p < .01$ , \*  $p < .05$

지를 함께 투입하였다(F change=340.28,  $p < .001$ ). 그리고 3단계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에 대하여 2단계의 모든 요인과 학대피해경험과 사회적 지지를 센터링한 값을 투입하였다(F change=3.90,  $p < .001$ ).

분석결과 3단계 모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학년은 ( $\beta = -.17$ ,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통제변수인 학년이 낮을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에서는 학년 ( $\beta = -.08$ ,  $p < .01$ )과 학대피해경험( $\beta = -.11$ ,  $p < .001$ ), 사회적 지지( $\beta = .68$ ,  $p < .001$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년이 낮을수록, 학대피해경험이 없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모형에서는 학년( $\beta = -.09$ ,  $p < .01$ )과 학대피해경험( $\beta = -.17$ ,  $p < .001$ ), 사회적 지지( $\beta = .68$ ,  $p < .001$ ), 학대피해경험과 사회적 지지의 센터링 항( $\beta = -.08$ ,  $p < .05$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형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3단계를 통해 살펴본 R2의 값은 1단계에서 .025, 2단계 .557, 3단계 .559으로 미약하지만 유의하게 증가하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보다 확실히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로 분석하였다(그림 2). 그림을 통하여서도 학대피해경험이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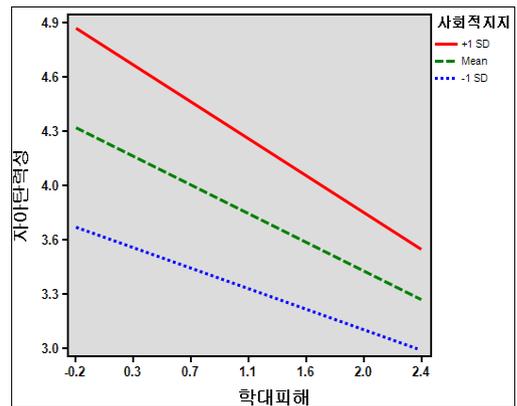


그림 2. 학대피해경험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학대피해 청소년의 부정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568명의 사례를 분석하여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피해대경험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결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아탄력성에 대하여 학년( $\beta=-.19, p<.001$ )과 학대피해경험( $\beta=-.40, p<.001$ )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대피해경험이 없을수록 자아탄력성은 증가하였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통제변수인 학년과 성별에서는 학년 ( $\beta=-.17, p<.001$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1단계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를 함께 투입했을 때, 학년( $\beta=-.08, p<.01$ )과 학대피해경험( $\beta=-.11, p<.001$ ), 사회적 지지( $\beta=.68, p<.001$ )이 유의미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센터링 한 항목을 모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년( $\beta=-1.88, p<.01$ )과 학대피해경험( $\beta=-.17, p<.001$ ), 사회적 지지( $\beta=.68, p<.001$ ), 학대피해경험과 사회적 지지의 센터링 항( $\beta=-.08, p<.05$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형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3단계를 통해 살펴본 R2의 값은 1단계에서 .025, 2단계 .557, 3단계 .559로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 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대피해경험은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9][40-43]와 일치하는 결과로, 학대가 아동과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을 방해하는 위험요소임에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별과 학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확인한 결과 학년은 조절변수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대피해경험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학대는 아동·청소년이 가정 등에서 장기적으로 경험하는 위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개입하는 것이 이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굴을 위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으로 인해 학대피해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대경험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의 학대가 부모의 훈육 방법과 양육의 한 형태로 유형화 되고 있어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와 국가적 개입이 실질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을 뜻한다. 즉, 훈육과 양육, 그리고 실제 가해자가 진실로 그러한 생각과 가치를 동반한다 할지라도 폭력은 학대이며, 학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한 중대한 훼손인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61].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 등,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권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인 지지의 표명으로 학대 자체에 대한 예방과 이미 발생한 학대의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조절효과로 확인된 것은 가정 내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학교와 사회에서 정서적 관계를 잘 갖거나 학교경험이 긍정적이면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호기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31]는 것을 뜻한다. 이때 긍정적인 학교경험이란 단지 학업성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받게 되는 지지 등을 포함 한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첫 번째 사회적 맥락인 학교에서 그들의 긍정적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이며 중요한 영역이다.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구체적인 문제해결기술(problem solving skills)을 배우도록 돕고, 교사나 친구들과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61].

이와 더불어 국가적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은 아동학대의 가해자 다수가 가족구성원과 친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난 사후적 대처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아탄력성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던 만큼 학대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부정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이로 인한 긍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학대피해경험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성별과 학년이 자아탄력성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위한 표집에서 부산시내의 중학생을 각 권역별로 할당표집함에 있어 성별과 학년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 연구를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해 후속연구를 통해 성별과 학년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표집을 통해 보다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5.
- [2] D. F. Perkins and K. R. Jones,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g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Vol.28, No.5, pp.5477-563, 2004.
- [3] S. R. Jaffee, A. Caspi, T. E. Moffitt, M. Polo-Tomas, and A. Taylor, "Individual, family, and neighborhood factors distinguish resilient from non-resilient maltreated children: A cumulative streers model," *Child Abuse and Neglect*, Vol.31, pp.231-253, 2007.
- [4] J. Block,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Vol.53, pp.281-295, 1982.
- [5] A. Tellegen, "Structures of moo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1985.
- [6] 박현진,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7] J. Block,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construct of ego-contr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1950.
- [8] D. Cicchetti and S. Toth, "Social policy implications of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Editoria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12, pp.551-554, 2000.
- [9] J. Block and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 [10] 송영경,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1] 좌문경,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12] 허행식,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3] 강석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14] C. A. Markstrom, S. K. Marshall, and R. J. Tryon, "Resiliency, social support, and coping in rural low-income Appalachian adolescents from two racial groups," *Journal of Adolescence*, Vol.23, pp.693-703, 2000.
- [15] D. M. Licitra-Kleckle and G. A. Waas,

-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high-stress adolescent: The role of peers and famil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8, pp.381-402, 1993.
- [16] 김선자, 조옥귀,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제13권, 제1호, pp.361-385, 2003.
- [17] 노필순, 윤혜미, “중학생의 빈곤감,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 및 문제행동,” *학교사회복지*, Vol.12, pp.23-46, 2007.
- [18] 김만지, “청소년의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3호, pp.55-66, 2002.
- [19] 김세원,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0] 이영분, 김나예,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Vol.39, pp.151-180, 2012.
- [21] J. Korbin, “Cultural perspectives and research directions for the 21th century,” *Child Abuse and Neglect*, Vol.15, pp.67-77, 1991.
- [22] 황혜자, 조수진, “아동학대와 세대간 전승에 관한 고찰-애착 이론과 관련하여-,” *사회과학논집*, 제26권, 제1호, 2007.
- [23] 허남순,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제1권, 제1호, 1993.
- [24] 박풍규,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구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1호, 2011.
- [25] 김현수,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 경험과 아동의 또래 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26] M. Rutter,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7, No.3, pp.316-331, 1987.
- [27] A. A. Masten, J. D. Coatsworth, J. Neemann, S. D. Gest, A. L. Tellegen, and N. Garnezy, “The structure and coherence of competence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66, pp.1635-1659, 1995.
- [28] S. S. Luthar, D. Cicchetti, and B. Becker,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71, No.3, pp.543-562, 2000.
- [29] F. Fonagy, M. Steele, H. Steele, A. Higgitt, and M. Target, “The Emmanuel Miller Memorial Lecture 1992: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sili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35, No.2, pp.231-257, 1994.
- [30] J. G. Dyer and T. M. McGuinness,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ol.10, No.5, pp.276-282, 1996.
- [31] M. Rutter,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28, pp.493-509, 1985.
- [32] N. Garnezy,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 (Eds.).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Books Supplement, No.4, pp.213-233, Oxford, England: Pergamon, 1985.
- [33] 김혜성, “회복력(Resilience) 개념 개발,” *한국간호과학회 학술저널*, 제28권, 제2호, pp.403-413, 1998.
- [34] 한현아, *가정의 위험요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35] 박종명,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자아탄력성과 학업성적 및 청소년의 학습스트레스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6] 강지영, *인권에 대한 인지능력과 정서적 공감의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37] 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집단 비교를 통하여," 한국아동복지학, 제21권, pp.207-232, 2006.
- [38] 정예진, *아동이 지각한 학대경험정도와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9] 김경호, 김현옥, "아동학대 잠재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2권, 제2호, pp.171-192, 2007.
- [40] 신혜영, 최해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2호, pp.295-307, 2003.
- [41] 장혜영,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42] 한지숙, *피학대아동의 가정복귀 후 심리 행동적 적응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43] 황은수,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44] D. Cicchetti, F. A. Rogosch, M. Lynch, and K. D. Holt,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Processes leading to adaptive outcom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5, pp.629-629, 1993.
- [45] 이상준,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a.
- [46] 이상준,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적 보호요인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pp.331-353, 2006b.
- [47] 주소영,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능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48] S. Cohen and H. M.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No.2, pp.99-125, 1983.
- [49] S. Cobb,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pp.300-312, 1976.
- [50] R. A. Thompson,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through Social: A Critical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1995.
- [51] 김연수,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52] 장덕희, *가정폭력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설천개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53] 김영현, *학대경험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54]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통계, 학년 및 연령별 학생수-교육청별*, 2015.
- [55] 홍은주, "아동기 학대경험이 아동의 심리,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제2권, 제1호, 1998.
- [56] E. C.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Vol.70, No.5, pp.1067-1079, 1996.
- [57] 박지원,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58] 이종환, *SPSS를 이용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의 이해와 적용*, 공동체, 2008.
- [59] 김용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의 개발과 평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1권, 제3호, 2009.
- [60] 이학식, 임지훈, *SPSS 18.0 매뉴얼*, 집현재, 2011.
- [61] 이혜영,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저 자 소 개

이 조 경(Jo-Kyoung Lee)

정회원



- 2004년 8월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 2009년 2월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현재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 위기청소년, 청소년정책,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백 순 희(Soon-Hee Back)

정회원



- 2000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학사)
- 2007년 5월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석사)
- 현재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 청소년, 사회정책